

“둘 다 ‘별로’지만...트럼프 보단 힐러리”

힐러리, 지지율 최대 9%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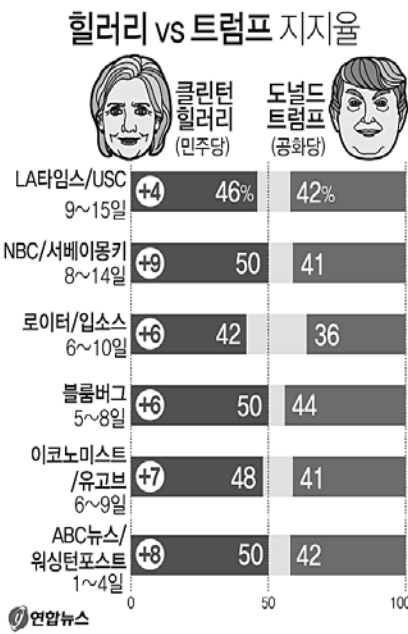
대통령 적합성 양측 50% 밀돌아

트럼프, 열세에도 “태도 안 바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를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방송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몽키와 지난 8~14일 유권자 1만5179명을 상대로 한 전국단위 공동조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미 대선은 이날 현재 84일 남았다. 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은 50%, 트럼프는 41%로 나타났다. 존슨은 11%, 스타인은 4%를 각각 얻었다.

대통령이 될만한 성품과 기질 면에서 트럼프는 매우 저조했다. 클린턴이 42%로



50%를 밀돌았지만,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낮은 17%에 머물렀다.

유권자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39%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기질을 가졌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

서 대통령이 갖춰야 하는 기질을 트럼프가 가졌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무당파에서는 23%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기질을 가졌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가 그렇다는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온라인매체인 뉴스맥스는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기질을 가졌는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군인 가족들은 클린턴보다 트럼프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NBC와 서베이몽키가 1~7일 군인 가족 3123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트럼프는 51%의 지지율을 얻어 클린턴(41%)을 10%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군인 가족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가 무슬림계 전사자의 부모인 키즈르 칸 부부를 향해 무슬림 비하 발언을 하면서 미군 전사자 모임의 반발 등 역풍을 맞았지만 군인 가족들의 표심은 여전히 공화당 후보에게 더 쏠렸다.

한편, 클린턴은 전체 지지율은 물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에 앞서 나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발표한 버지니아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클린턴의 지지율은 52%로 38%에 그친 트럼프를 크게 앞섰다. 경합지의 하나로 꼽히는 버지니아는 클린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 상원의원의 지역구다. 이 조사는 지난 11~14일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른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도 클린턴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미 몬머스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의 플로리다 지지율은 48%로, 트럼프(39%)에 앞섰다. 클린턴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지지율 고전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격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위스콘신 주의 매체 WKBT-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가 당신은 (태도) 전환을 하려 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람이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맞지 않는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라며 “나는 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 군 수뇌부, 사드 배치 재고 촉구

美·中 육군 총장 베이징 회담

미국과 중국의 육군 참모총장들이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간 갈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16일 베이징에서 리쥔칭(李作斌)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사령관(사령관)을 비롯한 중국군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은 회담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밀리 총장이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미사일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점령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리쥔칭 사령관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문제, 한·미의 사드 배치 선포는 모두 중·미(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기가 매우 쉬운 문제”라며 “미국이 이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언의 수위는 높지 않지만 사드에 관

한 미국의 주장을 반격하면서 미국을 향해 사드 배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등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양국 육군 수뇌부가 갈등 현안이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벌였을 것 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 사령관은 “중미 양국이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 군사관계는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군이 협력강화, 갈등 등의 적절한 처리, 리스크의 관리·통제 등을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밀리 총장은 이에 대해 “미·중 양국 군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육군의 건강하고 양호한 발전을 이룩하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군 수뇌부가 있는 8·1대루에서 개최됐으며 회담에 앞서 중국 육군 의장대의 환영식도 진행됐다. /연합뉴스

염소는 떠다니고 악어는 말라 죽고...물에 시달리는 지구



폭우가 강타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곤잘레스에서 16일(현지시간) 도로가 물에 잠긴 가운데 한 주민이 염소들을 실은 배를 몰고 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가뭄이 덮친 파라과이 차코 지역에서 수백마리의 카이만 악어들이 굶은 진흙 속에 널브러져 있다. /연합뉴스

폭우에 잠긴 美 루이지애나...최소 8명 사망·8000명 대피

지난 주말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한 폭우에 따른 홍수로 최소 8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홍수로 최소 8

명이 사망하고 4만 채에 육박하는 가옥이 파손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수가 본격화한 12일 이래 죽어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12~13일 이틀간 609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인근 강이 범람해 루이지애나 주 주택과 기업의 사업장이 대부분 침수됐다.

비가 그친 뒤 일부 지역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에드워즈 주지사는 강 하류 지역에선 여전히 홍수가 이어질 수 있다며 당국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에만 남부 루이지애나 지역에 29건에 달하는 새로운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 단전과 단수로 긴급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은 1만4000명까지 이르렀으나 이날 현재 8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오는 사람이 많아 대피소 체류 인원의 수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립대를 비롯한 최소 4개의 학교 기관이 홍수로 문을 닫았다. AP 통신은 약 4만 명의 주민이 FEMA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고, 루이지애나 주 12개 패리시(카운티처럼 시를 묶은 행정구역)에 연방 재난사태가 선포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독일 정부 “에도르안은 이슬람 급진세력”

독일 정부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이슬람 급진세력 지지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야당인 좌파당에 보낸 의회 답변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급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답변서는 독일 공영방송 ARD가 입수해 공개한 독일 정부의 기밀 문건이다. ARD는 터키가 중동 근처에서 이슬람 세력들의 행동을 위한 중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결론도 문건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세력에 공공연하게 동조하고, 이슬람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런 시각을 통명스럽게 비판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당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터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독일 정부의 전략에도 차질을 일으킬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 (왼쪽) 에도르안 터키 대통령 (오른쪽)

내무부의 문서는 독일 정보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에르도안 대통령과 터키 여당인 정의개발(AK)당이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시리아 내의 이슬람 반군과 같은 이슬람 세력을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하마스는 2003년부터 유럽연합(EU)으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정받은 단체인 까닭에 터키와의 관계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듯 야당과 언론에 대한 터키의 권위주의 행보에 조금씩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터키가 지난달 15일 쿠데타 진압 후 광범위한 숙청작업으로 민주주의, 법치 훼손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아끼며 유화책을 보여 왔다. 내무부는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

전원주택지

◆ 경기도 평택시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 토지 1,611평 (총 7 필지 분할가능)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 최고의 입지 조건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수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평택 소액 투자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 301평 (평당 170만) 마산산단과 LG전자 정문 앞 위치	▶ 매가 5억 2천
②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 613평 (평당 95만) / 고덕신도시	▶ 매가 5억 8천 235만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 775평 (평당 120만) 고덕신도시 5분, 도로접합	▶ 매가 8억 5천만

010 - 6670 - 9800

010 - 7384 - 7800